

개 관

2013년 1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주관, 당진시의 후원으로 착수된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사업이 2013년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사업은 아태지역의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세시풍속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통 줄다리기의 보호, 전승 및 비교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줄다리기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범인류적인 문화현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의례로 주로 농경 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할 때, 혹은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해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전통 줄다리기는 기후나 환경에 따른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수성과 독자성, 창조성이 존재하여 아시아의 공유유산으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더욱이 각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행이 중단되는 등 전승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줄다리기의 분포 및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전통 줄다리기 종목 보호의 시급함과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 당진시는 500여 년 전 시작되어 지역 문화와 특색에 맞게 발전,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줄다리기 축제 및 국제회의 등의 제반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줄다리기의 무형문화유산 전승기반을 구축하고, 민속자료 수집, 연구 등 전통의 보전과 전승,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당진시는 한국 뿐 아니라 공통분모를 가진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와 국제교류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진시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줄다리기 현황 조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세시풍속으로서의 줄다리기 문화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활발한 문화적 교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해 기관 및 연구자들 간의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 하며,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줄다리기 문화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각국이 줄다리기 문화에 대한 보호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전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획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줄다리기 관련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 전통 줄다리기 분포 및 기초자료 조사
- 전통 줄다리기와 관련된 기존 문헌자료 수집

2.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실시

- 조사자 : 현지 전문기관
- 내 용
 - 전통 줄다리기의 지정(指定, identification), 특성 및 전승 현황, 보호 전승 관련자, 보호조치, 관련 의례 및 행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국가별 현황에 관한 질문서 작성(첨부된 질문지 참조), 기존 문헌자료 및 시청각 자료 수집
- 전통 줄다리기 보호 및 전승 관련자 인터뷰
- 최종보고서 제출 : 3월 말

3.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제작

- 기 간 : 4월 한 달 간
- 작성자 : 현지 조사팀
- 방 법 : 항목별로 작성된 질문서 및 인터뷰 자료를 수령하여 정리
- 보고서 발간 : 수령한 주요 자료를 제본하여 제작

유네스코아태무형센터는 사업 계획 수립과 동시에 2013년 1월부터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기관과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면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가졌다. 또한 센터에서는 현황조사를 수행하게 될 각국의 현지 조사팀들이 일정한 지침과 형식을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조사 내용의 질을 높이고 보다 풍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현황조사 질문지를 개발하여 수행 기관에 전달하였다(붙임 참조).

현지조사팀 구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3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기관과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각국의 현황조사 수행기관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및 연구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현장 답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지조사팀은 전통 줄다리기와 관련 기존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전통 줄다리기 분포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 줄다리기 연행 현장을 방문하여 줄다리기 연행을 참관하고, 보호 및 전승 관련자를 인터뷰 하였으며 이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수행기관에서는 센터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질문지를 토대로 현황조사 결과자료, 수집한 문헌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제출하였다.